

경기불황에 차 안산다...광주 차량 구매 '역대 최저'

지난해 연말 차량 등록대수 72만3256대...광주 8855대 그쳐 외제차 증가율도 5.5%로 낮아...전기차·하이브리드 증가폭 커

지난해 광주에서 신규 등록된 차량이 역대 최저 수준인 8855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IMF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1998년과 각종 약재로 소비 심리가 잔뜩 위축됐던 2004년 이래 최저치로, 지난해 국내 경기가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12일 광주시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 등록된 차량은 전년보다 8855대(1.24%) 늘어난 72만3256대로 집계됐다. 지난 1988년 이후 신규 등록 차량 대수가 9000대 이하를 기록한 건 지난 1998년(2976대), 2004년(7759대) 그리고 지난해가 유일하다.

2010년대 들어 광주지역 신규등록 차량은 2010년·2만4017대→2011년·1만7335대→2012년·1만5009대→2013년·1만7233대→2014년·2만2180대→2015년·2만1946대→2016년·2만2095→2017년·1만5918대→2018년·1만5023대→2019년·1만1965대→2020년·1만5459대→2021년·9043대→2022년·1만3618대로 많을 땐 2만5000대 가량, 평균 1만5000대 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

다. 특히 지난해 승합차와 화물차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광주에 등록된 차량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72만3256대 가운데 승용차가 9627대 늘어난 60만8506대(84.13%)로 가장 많았다. 반면 승합차와 화물차는 1만7261대, 9만3516대로 전년보다 각각 735대(-4.08%), 327대(-0.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 차량 등록 대수는 광산구가 21만8104대(30.16%)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북구(20만7415대·28.68%), 서구(15만2640대·21.10%), 남구(9만6558대·13.35%), 동구(4만8539대·6.71%)였다.

전체 차량등록대수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광주지역 수입차 증가율도 대폭 감소했다. 지난해 기준 광주지역 수입차는 전년보다 5.5% 늘어난 8만4997대였다. 승용차가 8만1518대였고, 화물차 1751대, 특수차 1132대, 승합차 596대였다.

광주지역 수입차 증가율은 지난 2016년 전년비

33.5%를 기록했는데, 2017년 12.8%로 20%p 이상 감소하더니 2019년 9.9%로 한지릿수대로 내려갔다. 이후 2020년 8.9%, 2021년 9.4%, 2022년 7.6%를 기록하더니 지난해 5%대로 내려앉았다.

가장 많은 수입차는 벤츠, BMW, 아우디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차로 4만2357대를 기록했다. 포드, 쉐보레 등 미국차가 1만5111대로 뒤를 이었고, 일본(7317대), 영국(3684대), 스페인(2559대), 스웨덴(1991대) 등 순이었다.

지난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 등록된 차량을 사용 연료별로 살펴보면 휘발유 차량이 32만94대로 가장 많았다.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차량은 전년(31만5930대)보다 1.3%(4164대) 늘어났다. 반면 경유차는 전년도(26만3666대)에 견주 2.6%(6899대) 줄어든 25만6767대로 집계됐다.

전기차는 무려 전년(9096대)보다 37.84% 증가한 1만2538대로 1만 대를 넘어섰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3만9965대로 전년(3만75대)보다 32.84%(9890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가 광주지역 자동차 신규 등록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면서"며 "올해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 전기차 구매율, 중국보다 낮다

지난해 100대 중 9대
중국, 100대 중 22대
미국·일본보다는 높아

작년 한국의 전기차 구매율이 중국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동차 선진시장인 미국, 일본보다는 높았다.

12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시장 자동차 판매량은 174만9729대이며, 이 중 전기차는 9.3%에 해당하는 16만2507대였다. 즉 전기차 구매율은 9.3%다. 한국의 전기차 구매율은 2019년 1.9%에 불과했지만, 2020년 2.4%, 2021년 5.8%, 2022년 9.7%로 꾸준히 상승했다.

작년에 소폭 감소한 것은 충전 인프라 부족, 충전 비용 상승, 높은 차량 가격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중국시장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668만6000대로, 전체 자동차 판매량(3009만4000여대)의 22.2%를 차지했다. 중국의 전기차 구매율은 2019년 3.8%에서 2020년 4.4%, 2021년 11.1%, 2022년 19.9%로 가파른 상승향 곡선을 그렸다.

한국과의 전기차 구매율 격차는 2019년 1.9%포인트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12.9%포인트로 벌어졌다.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전기차 인기는 연간 판매목표를 달성을 위한 제조사의 강력한 할인 정책은 물론, 취득세 감면 등 전기차에 친화적인 제도적 환경 등을 그 배경으로 한다.

한국의 전기차 구매율은 중국보다는 낮지만, 미국, 일본, 인도보다는 높다. 자동차 전문지 위즈오토와 일본자동차딜러협회(JADA), 인도자동차딜러협회(FADA)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일본, 인도의 전기차 구매율은 각각 7.2%, 2.9%, 2.1%였다. 전기차 판매 대수는 미국 111만5633대, 일본 8만8535대, 인도 8만2105대를 기록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그룹, 미국 '최고의 차' 3개 부문 수상

카즈닷컴 선정...현대차 아이오닉5·기아 텔루라이드·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현대자동차그룹은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 평가 웹사이트 '카즈닷컴'이 발표한 '2024 최고의 차 어워즈'에서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텔루라이드,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이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고의 차 어워즈는 올해의 차, 최고의 전기차, 최고의 고급차, 최고의 가족용 차, 최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최고의 픽업트럭 등 6개 부문으로 나뉜다. 신차의 품질과 혁신성, 가치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아이오닉5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의 전기차로 선정됐다. 카즈닷컴의 제니 뉴먼 편집장은 "아이오닉5가 2년 연속 선정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빠른 충전과 다양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기술 사양, 혁신적인 디자인이 균형을 이루는 전기차"라고 평가했다.

텔루라이드는 2022년 이어 최고의 가족용 차로 다시 뽑혔다. 카즈닷컴은 3월 기반의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안전 사양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가족용 차라고 호평했다.

기아는 이 부문에서 지난해 카니발까지 3년 연속 수상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우아한 외관과 잘 정돈된 실내, 인상적인 주행 성능을 갖춘 전기차로 인정받으며 최고의 고급차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G90에 이어 2년 연속 이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기아 텔루라이드. (기아 제공)

GV70 전동화 모델은 이달 초 미국 유력 자동차 전문지 '카 앤드 드라이버'가 발표한 '2024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즈'에서도 '고급 전기 SUV' 부문에 오르며 미국 고급차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현대차그룹이 전했다. 이 모델은 지난해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높은 품질과 안전성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네시스, F1전설 '재키 익스' 공식 브랜드 파트너 선정

제네시스는 '모터스포츠의 전설'로 불리는 벨기에 드라이버 재키 익스(사진)를 브랜드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익스는 포뮬러원(F1), 24시간 내구 레이스 등에서 20년 이상 활약하며 총 14회 우승을 차지한 레이싱계의 입지전적 인물이다.

그는 1967년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F1에 처음 데뷔한 후 총 8번의 우승과 25번의 포디움 피니시를 기록했다.

또 1966년 벨기에에서 열린 스파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후버트 한과 팀을 이뤄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르망 24시간 내구 레이스에서 6번 우

승하며 '미스터 르망'이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다.

익스는 향후 제네시스 홍보대사로서 브랜드 철학을 알리고, 현대차그룹 유럽기술연구소(HMETC) 등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익스는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미학을 향상 높게 평가했다"며 "서로에 대한 진정성에 기반해 발전적 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루크 동거블게 제네시스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CCO)는 "재키 익스와 함께 제네시스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실용성 높이고 가격 낮췄다...현대차 '2024 코나' 출시



현대자동차는 상품성을 더욱 강화한 '2024 코나'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2024 코나는 실용성을 높인 신규 트림 '모던 플러스'를 추가하고 트림별로 안전 및 편의사양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새로 추가된 모던 플러스는 엔트리 트림인 모던 트림을 기반으로 ▲운전석 전동시트 ▲열 통풍 시트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1열) 등 고객 선호 사양이 기본 적용돼 상품성이 향상됐다.

또 현대차는 모던 트림에 2열 에어벤트, 인기 트림인 프리미엄에 직물 루프와 18인치 알로이 휠(하이브리드 모델 제외)을 기본화하고 최상위 트림인 스포퍼에선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을 기본 적용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으로 구성된 선택 사양인 '현대 스마트센스'에도 진동 경고 스티



현대차 '2024 코나' (현대차 제공)

어링 휠을 추가해 ▲모던 ▲모던 플러스 ▲프리미엄 트림에서 선택 가능하게 했다.

특히 현대차는 2024 코나 모던 트림의 판매 가격을 40만 원 인하여 구매 부담을 낮췄으며, 이외 트림은 일부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추가했음에도 가격을 동결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모던 2516만 원 ▲모던 플러스 2580만 원 ▲프리미엄 2779

만 원 ▲인스퍼레이션 3120만 원이며, 가솔린 2.0 모델 ▲모던 2446만 원 ▲모던 플러스 2510만 원 ▲프리미엄 2710만 원 ▲인스퍼레이션 3051만 원이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2959만 원 ▲모던 플러스 3023만 원 ▲프리미엄 3178만 원 ▲인스퍼레이션 3495만 원이다. (* 하이브리드 모델 세제혜택 적용 후 가격)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민이 뽑은 '안전평가 실시 차종' 싼타페·EV3·벤츠 GLB 250 선정

국토부·자동차안전연 투표

현대차 싼타페, 기아 EV3, 메르세데스-벤츠 GLB 250 등 3개 차종이 국민 투표를 통해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실시 대상으로 선정됐다.

자동차안전도평가는 법적 안전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의 평가를 실시해 제작사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주도의 평가 제도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하 안전연)에 따르면 지난달 18~24일 국민 5820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이들 3개 차종이 각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부문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평가 대상이 됐다. 하이브리드차 부문은 올해 처음 포함됐다.

이번 투표는 부문별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출시됐거나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국내의 완성차 중 가격이 8천만원 미만이며 최근 5년 내 자동차안전도평가를 받지 않은 차종 5개씩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참여자는 각 부문에서 2개의 차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하이브리드차 부문에서는 지난해 8월 출시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싼타페가 3811표(65.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지난해 9월 출시된 볼보의 중형 세단 S60(2404표·41.3%)이었다.

전기차 가운데서는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소형 SUV EV3가 3767표(64.7%)를 얻어 1위에 올랐다. 2위는 지난해 7월 국내에 들어온 테슬라의 중형 SUV 모델Y의 중국산 후륜구동(RWD) 모델(3124표·53.7%)이었다.

내연기관차 중에서는 지난해 말 출시된 벤츠의 준중형 SUV GLB 250이 2756표(47.4%)로 최다 득표를 했다. KG모빌리티(KGM)의 준대형 픽업트럭 렉스턴 스포츠가 2554표(43.9%)로 2위였다.

국토부와 연구원은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1위 오른 싼타페와 EV3, GLB 250을 올해 자동차안전도평가 대상 차종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자체 선정된 다른 신차들을 대상으로 충돌·외부통행자·사고예방 안전성 등의 평가를 진행한 뒤 올해 말에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